

한국전통문양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 관한 연구

장 수 경

한남대학교 이과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s Based on Their Types

Soo Kyung Cha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Part-times Instrutor of Hannam University

目次

Abstract	1. 문양군의 분류
I. 서론	2. 문양의 용어
II. 이론적 배경	3. 문양의 표현 방법에 따른 유형분류
1. 범주론	4. 한국전통 문양의 분류체계
2. 유형개념	IV. 요약 및 결론
3. 문양의 유형적 분류	참고문헌
III. 한국전통 문양의 분류	

Abstract

A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s has been made according to their objects and presenting methods. The classification is represented with 3 levels of categories. First, the superordinate category is composed of 7 groups of patterns, i. e. Naturals, Animals, Plants, Artifacts, Geometrics, Composites, and Others. Second, the basic category is composed of motifs in each group. Third, the subordinate category is composed of 3 types, i. e. realistic, stylized, abstrac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simplification. As this classification is a method for organizing informations in Korean traditional patterns in a systematic way, it can offer a useful basis for computerization of the patterns.

I. 서론

민속풍이 세계패션 경향의 하나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패션계에서도 한국 전통의 복식미를 현대복식에 결합시킴으로써 한국패션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 전통미를 현대복식에 활용한 방법을 보면, 한복의 조형요소인 한복선, 전통색, 전통직물, 전통문양 등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통문양은 우리의 미적 추구를 충분히 발휘하여 장식 욕구를 표현해 주는 디자인 도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문양을 과거의 문양으로 남겨 두거나, 또는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현대의 생활양식에 맞으며 현대인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문양으로의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대 디자인에 활용된 것은 수많은 전통문양 중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있어 보다 다양한 전통문양을 이용한 문양 디자인의 개발과 현대화 작업이 요구된다. 전통문양을 이용한 디자인의 개발은 한국 고유의 전통미에 대한 재인식은 물론, 더 나아가 전통문양을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개구성함으로써 전통문양의 국제화를 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문양의 단편적인 활용이나 있는 그대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티브의 다양한 반복배열법, 표현기법, 크기변환 및 형변환, 2가지 이상의 모티브합성 등의 디자인 전개 방법 등을 통해 새로운 모티브를 창조하고 이에 색상 및 소재의 유행경향을 적용시킴으로써, 전통문양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현대의 패턴은 고전적 패턴과 현대적 감각이 서로 어우러져 새로운 패턴이 창출되거나, 고전적 패턴이 변형되어 다시 우리들의 기호에 맞게 표현되는 것이다¹⁾. 그러므로 우리 전통문양을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현대 패턴디자인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한국전통문양을 새로운 문양 창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작업보다는 텍스타일 분야에서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최근 패션계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첨단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에 의한 문양 디자인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문양의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전통문양의 전산화를 위해 필요한 통일된 분류체계(Chenhall, 1978)가 없는 상태이므로,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분류가 이루어져야겠다. 문양 디자인을 위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문양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통일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분류체계의 기초는 표준화된 용어이며 이것이 없이는 분류체계는 존재할 수 없다²⁾. 한국전통문양의 경우, 많은 용어들이 한자어로 되어 있거나, 상징적인 의미에 따라 명명되어 있다. 그러나 전통문양이 현대 복식에 응용된 경우에 전통문양이 갖고 있던 상징적 의미와는 상관없이 단지 장식적 기능만을 갖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에 의한 문양의 이해가 쉬워야 하겠다. 즉, 용어의 표기에 있어서도 현대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가능한 용어의 추출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된 분류체계가 없는 한국전통문양의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범주론과 유형개념을 도입하여 문양의 표현 대상과 표현방법에 따라 세 수준의 범주로 분류하며, 이를 수형도로 작성하는 것이다.

둘째, 이 분류체계를 한국문양의 전산화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범주론

칸트는 범주를 순수 오성에서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인식의 기본개념이라 하였다. 즉, 범주란 감각적 자료들을 객관적인 경험의 통일로 종합하게 하는 기본형식이다. 신칸트파에서 범주는 각각의 과학의 논리적 기초인 선천적 개념이라 해석하였고, 유물변증법에서는 대상의 가장 일반적인 연관을 반영하는 기본개념을 범주라 하였다³⁾. Bruner(1957)는 형태주의 이론에서의 범주화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어떤 특별단서에 초점을 맞추고 범주전형에 의해 지각대상을 분류하여 지각체의 비슷한 점을 추리하는 유사성 지각과 차이점을 추리하는 대조적 지각에 의해 분류된 단서해석 및 추리한 다음 자극물의 특성 및 행동에 대한 예측으로 설명하였다. Bruner는 범주화의 전체기초는 유사와 비유사라고 제시하였다. Rosch(1973)는 지각자는 여러 종류의 지각체를 모두 다르게 지각하는 대신에 유목별로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을 묶어 판단하여, 그 결과 자극물 지각의 복잡성을 줄이고 조직화함으로써 정보처리를 신속하게 한다고 하였다⁴⁾. 즉, 범주화는 다양성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범주전형에 의해 유사한 것과 비유사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Whiteford(1946)는 정보의 조직화를 위한 전략이 분류체계라고 했으며, 이는 비슷한 특성에 기초한 부류의 시리즈로 대상을 그룹핑하는데 사용되며, 분류는 체계적이거나, 비체계적이며, 가장 좋은 선택은 그 중간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비체계적 전략은 연속적인 산문형식, 시각적으로 결정되는 유형학, 단순한 발견적 방법이 포함되며, 체계적 전략에는 모형적 분류, 결정표, 분류학적 분류, 수행도가 포함된다⁵⁾. 또한 Roach 등(1976)은 범주를 3 수준으로 나누어 기초범주, 상위범주, 하위범주라고 하였다. 기초범주는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 범주에서 분류된 대부분의 모든 대상에 대해 공통적인 속성을 갖는다. 상위범주는 기초수준 범주에서 분류된 대상보다 좀더 추상적인 대상이 포함된다. 기초범주의 대상보다 좀더 상세하거나 덜 추상적인 대상들이 하위범주에 속한다⁶⁾. 한국문양의 분류를 범주론에 입각하여 고려하여 볼 때, 유사성 지각과 대조성 지각에 의해 비슷한 것을 묶어, 다양한 형태의 문양을 유목별로 조직화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유목별로 조직화 된 문양은 범주수준에 따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분류체계를 도출해 낼 수 있다.

2. 유형개념

유의 통일을 그것 자체의 내부에서의 공통성과 다른 유적 통일에 대한 특이성이라는 양면으로부터 규정하는 표징이 구상적인 형으로 파악될 때, 이것을 유형이라고 한다. 유형의 개념은 어떤 유의 전체에 고유한 형성 원리에 근거하는 질적 통일을 인정하고 그 본질적 특징을 구체적 방향으로 드러내어 밝히는 데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내포하는 것을 특색으로 한다. 유형의 개념은 거기에 가치의 관점을 도입할 때, 어떤 유적 통일의 이상적이며 모범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것처럼 되어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띠기에 이른다. 이 의미에서의 형은 전형에 해당한다. 예술상에 있어서 유형의 개념은 개개 작품의 표현 그 자체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히 전형이라는 의미에서의 유형이 문제가 된

다.⁷⁾

유형의 개념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의 분류적 수단으로써 같은 형태 구조를 갖는 사물의 그룹을 묘사하는 개념이며 둘째, 유형 자체의 변화와 그 발전과정을 갖는 내적구조로 보는 관점이다. 이것은 유형의 두 개념이 상호보완적일 때 유형의 질적인 개념발전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분류수단으로써의 유형개념을 기초로 하여, 동시에 시스템이나 기존의 관계성의 총체인 구조로써 유형을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⁸⁾

유형개념에 관한 논의는 보편적으로 개요로서의 유형, 과정으로서의 유형, 구조로서의 유형의 3가지 국면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하고 있다. 개요로서의 유형은 특별한 대상과 유형학적 계층간의 분류수단으로써 간주된다. 이는 유형학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는 불충분하지만, 개요로서의 유형개념을 배후에 놓고 동시에 철학적 언어학적 요소로서 간주하면, 이러한 분석은 유형의 개념을 체계나 기존의 일반화된 관계성의 총합으로 보는 것이 되며, 결국 이것은 유형을 구조로 간주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유형의 이해가 시간과 공간 상에서 일어난다면, 이 개념은 과정 상의 현상 역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⁹⁾ 이 유형개념을 도입하여 전통문양에 적용하면, 개요로서의 유형과 구조로서의 유형으로 기초범주의 문양을 표현대상인 모티브에 따라 범주화하며, 하위범주에서는 각각의 문양의 표현방법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는가에 따라, 즉, 같은 문양 안에서의 내부구조에 따라 범주화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시대에 따라 문양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원형을 제공할 수 있어, 과정으로서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3. 문양의 유형적 분류

출처, 연출, 배열의 세가지 양상을 갖고 있는 문양은 각 양상에 따라 분류되며, 출처에 의해 자연물, 인공물, 상상물, 상징물로, 연출방법에 따라 사실적 표현, 양식화된 표현, 추상적 표현, 기하학적 표현으로 분류된다. 또한, 배열방법에 따라 전면, 사방, 이방, 한 방향, 가장자리, 간격을 둔 배열로 분류된다.¹⁰⁾ 리드는 문양을 장식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기하학적인 장식-점, 선, 면 등으로 구성되는 장식으로써, 여기에는 회화적인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둘째, 양식화된 장식-자연적인 대상의 정확한 재현과는 구별되면서 자연대상의 선적인 리듬이나 혹은 단순화를 강조한 것이다.

셋째, 유기적 혹은 자연주의적 장식-회화적인 의도로 된 장식으로서 인간상과 풍속주제, 동물주제, 식물주제 및 풍경으로 분류된 것이다.

넷째, 조형적 장식-대상의 응용이라기 보다는 대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대상의 실용적인 기능과 구분되는 장식 기능을 가진 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섯째, 패턴-하나의 대상을 반복해서 사용하여 기하학적 혹은 유기적인 양식화를 통하여 하나의 기본단위를 형성하여, 장식되는 부분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연쇄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구분한다.¹¹⁾

리드는 문양의 장식유형을 표현방법에 따라 유기적인 장식에서 기하학적인 장식까지를 세 단계로 나누었으며, 대상을 자체를 하나의 장식유형으로 생각한 인공물장식을 조형적 장식으

로 분류하였다. 또한 반복된 모티브와 단독 모티브를 구별하여 분류하였다. 최혜정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시문되어진 문양들을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점, 선, 면의 세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기하문이다.

둘째 유형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시각적 요소가 동원되어진 것으로 자연적 문양이다.

셋째 유형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들이 인간의 사고를 통해 시대를 달리함에 따라 나타나는 양식화된 문양이다.

넷째 유형은 인위적으로 창작하고 결정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무한한 다양성을 지닌 추상적인 문양이다.¹²⁾

그는 문양을 단순화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였으며 동시에 인위적 창작에 의한 추상적 문양을 같은 차원에서 분류하였다. 러스킨은 건축 분야에서의 장식을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첫째, 건축물 상부에 부가되는 독립적 부조물로써, 추상적 형태가 아닌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으로 유기적 형태의 장식이다.

둘째, 건축물 하부에 부가되는 부조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써, 보다 단순한 형태의 '유기적 형태와 유사한 장식'이다.

셋째, 외곽선 만으로 표현되어 형태가 단순화된 것으로, 유기적 형태가 외곽선으로 추상화된 장식이다.

넷째, 다양한 채색의 기하학적 패턴이나 구름무늬 등을 사용한 형태로 비유기적 장식이다.

¹³⁾ 즉, 러스킨의 장식유형분류는 장식의 특성을 장식의 단순화 정도에 따라 유기적인 것에서 비유기적인 것의 4 단계로 나눈 것이다. 구미지는 러스킨의 장식유형 분류를 기초로 복식에 적용하여 복식의 유형적 분류를 행하였으며, 복식의 분류인자 중 하나인 무늬를 유기적 유형은 사실적인 것으로, 비유기적 유형으로 추상적, 기하학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Ⅲ. 한국전통문양의 분류

자연주의를 숭상하였던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자연형상에 의한 모티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¹⁴⁾, 사실적 표현의 문양으로부터 기하학적인 표현까지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조형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양의 분류는 구성방식이나 유형에 따라, 또는 시대별로 그 분류방식이 각 문헌마다 여러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그 분류방법은 표현대상인 모티브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표현방법에 의한 분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같은 문양이 중복되어 분류된 경우도 있었다. 즉, 통일된 분류체계를 갖지 못하고 연구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통문양을 표현대상과 표현방법에 따라 세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표현대상과 표현방법을 같은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문양을 분류하였다. 즉, 단순한 대상의 분류에서 더 나아가 대상의 표현방법에 따라 유형적 분류를 행하였다. 상위범주에 해당하는 문양군의 분류는 기존의 문헌¹⁵⁻¹⁷⁾ 및 선행연구¹⁸⁻²⁹⁾를 기초로 하여, 문양들을 포괄하여 나타낼 수 있는 문양군들로 분류하였으며, 기초범주에 해

당하는 문양들은 표현대상에 따라 모티브별로 분류하고, 각 문양용어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현대화된 용어로 바꾸어 명명하였다. 하위 범주에서는 문양의 표현방법에 따라 사실형, 양식형, 추상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 용어들을 토대로 세 수준의 범주로 구성된 수형도를 제작하여 한국문양의 분류체계를 도출해 내었다.

1. 문양군의 분류

선행연구들을 보면, 특정 시대에 나타난 문양의 종류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특정 조형물을 선택하여 그에 나타난 문양을 세분한 예가 대부분이었다. 분류된 문양군을 보면, 자연문군, 식물문군, 동물문군, 기하문군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외의 문양군으로 상징문군, 문자문군, 단청문군, 풍경문군, 건물문군, 길상문군, 문자문군 등이 있었다. 분류된 문양군 내의 문양의 내용을 보면, 같은 문양이 중복되어 분류되거나, 하나의 문양군 안에 들어 있는 문양들이 여러 문양군으로 나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길상문군의 경우, 문자만으로 구성된 것, 문자와 문양이 복합으로 구성된 것, 문양만으로 표현된 것의 3종류로 구분된다.³⁰⁾ 이들은 길조를 의미하는 문양의 종류로 학, 물고기, 나비 등의 동물문, 국화, 연꽃, 대나무 등의 식물문, 칠보문, 기하문으로 모두 길상문군에 포함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기 4가지의 문양군에 각각 포함시켰으나, 문자문은 기타문군에, 칠보문의 일부는 인공물문군에 포함시켰다.

상징문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에 따라, 용, 봉황과 같은 문양들은 동물문군에, 보상화와 같은 문양들은 식물문군에 포함시켰다. 단청문군은 내용별로 분류하면, 연화문, 모란문, 국화문, 당초문, 석류문, 박쥐문, 매화문, 사자문, 운문, 기하문, 태극문, 무궁화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³¹⁾ 이들 중에 기하문과 태극문은 기하문군에, 연화, 당초문 등은 식물문군에, 박쥐문과 사자문은 동물문군에, 운문은 자연문군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공통적인 4가지의 문양군 이외의 문양군에 포함되는 문양들도 새로운 분류에 의하면, 대부분이 전술한 4가지의 공통적인 문양군에 해당되었으나, 건물문, 칠보문의 책, 악기 등과 같은 인공물에 해당되는 문양, 그리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문양들이 있었다. 이들은 각각 인공물문군과 기타문군에 포함시켰다. 인공물문군은 대상물 그자체가 하나의 장식 기능을 하는 문양들로 이루어지며, 매듭, 기물, 동전, 악기등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연구자에 따라 인물문을 동물문군에 해당시킨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기타문군에 포함시켰다. 또한 문자문도 기하문군에 해당시킨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문자중 일부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진 문자, 권자, 亞자 등과 같은 몇 자를 제외하고는 문자문에 포함시켜, 기타문군에 해당시켰다. 기하문군 이외의 문양군에 해당하는 문양들일지라도, 원래의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단순화되어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된 경우와, 단순한 기하학적인 선과 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기하문군에 포함하였다. 기하문군은 표현방법에 따라 유형별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하위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전통문양에는 모티브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도 있었지만, 복합으로 구성되어 문양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십장생, 풍경 등과 같이 여러개의 모티브가 사용되어 하나의 문양을 형성한 것들로, 이들을 한데 묶어 복합문군으로 분류하였다. 결론적으로, 상위범주에 해당하는 한국전통문양의 문양군은 자연문군, 식물문군, 동물문군, 인공물문군, 기하문군, 기타문군, 복합문군으로 대별된다(표 1).

<표 1> 상위범주의 문양군과 기초범주의 문양

문양군	문양
자연문	구름, 해, 달, 별, 물결, 돌, 불
동물문	용, 학, 거북, 닭, 물고기, 박쥐, 극락조, 봉황, 나비, 도깨비, 말, 사슴, 원앙, 기린, 호랑이, 꿩, 해태, 토끼, 오리, 개, 기러기, 새, 곤충
식물문	연꽃, 보상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모란, 포도, 덩굴, 석류, 풀, 복숭아, 표주박, 버드나무, 수초, 꽃
인공물문	동전, 쌀, 거울, 책, 악기, 도끼, 매듭, 부채, 도자기, 탈
기하문	사각형, 마름모형, 육각형, 삼각형, 원형, 선, 번개, ㄱ자, ㄴ자, ㅁ자, ㅂ자, ㅅ자, ㅇ자, ㅈ자, ㅊ자, ㅋ자, ㆁ자, 태극, 팔괘
복합문	십장생, 풍경, 식물+동물
기타문	인물,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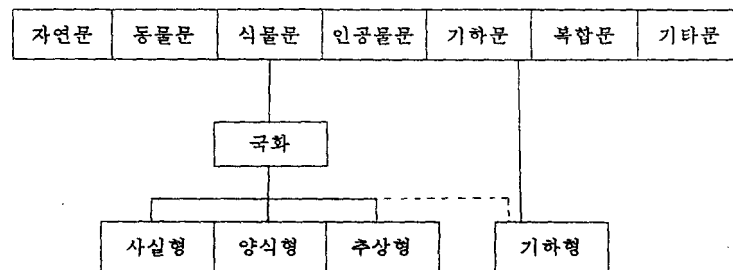
2. 문양용어

기초범주에 해당하는 문양용어를 보면 대부분이 한자어로 표기되었거나 상징적 의미에 따라 명명되어 있다. 현대에 와서, 우리의 문양이 복식에 응용된 경우를 보면, 상징적 의미에서 보다는 장식적 기능을 가지고 사용되었기 때문에, 용어와 문양 간의 이해를 돕는 용어의 현대화 작업이 필요하다. 자연문군에 속하는 구름문은 양상에 따라 각기 명칭을 달리 하고 있는데, 점운, 유운, 기운, 풍운, 사운, 용운, 십자운, 만자운, 보운 등으로 불리워진다. 이밖에도 화운, 적운, 충운, 행운, 권운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워졌지만,²⁰⁾ 이를 모두 “구름”이라는 문양용어로 칭하여 구름의 형태에 따라 달리 명명하지 않았다. 그밖의 다른 자연문군에 속하는 문양들도 한자어를 바꾸어 “해”, “달”, “별”, “물결”, “바위” 등으로 명명하였다. 동물문군에 속하는 사령이나 사신문과 같은 문양은 여러문양을 한 단어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명명하였다. 사령문은 “기린”, “봉황”, “거북”, “용”으로 각각 분리하였으며, 사신문의 주작, 백호, 현무, 청룡은 각각 봉황, 호랑이, 거북, 용으로 동물문군에 포함시켰다. 식물문군의 연화와 연관은 같이 묶어 “연꽃”으로 명명하였으며, 풀과 풀꽃은 “풀”로 명명하였다. 그 외의 꽃은 꽃의 이름에 따라 명명되었다. 그러나 보상화와 같은 상상의 꽃은 현대화된 용어를 찾을 수 없어 원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인공물문군에는 칠보의 전, 서각, 경, 서, 특경 등의 자연물이 아닌 것들을 포함시켰으며, 각각 “동전”, “쌀”, “거울”, “책”, “악기” 등으로 표기하였다. 기하문군에는 창살문, 단청문의 금문, 태극, 팔괘 등이 속하게 되며, 문자 중 기하학적 요소를 갖고 있는 ㄱ자, ㄴ자, ㅁ자, ㅂ자 등과 같은 문자형이 여기에 속한다. 기하문군의 문양은 기하학적인 기본형을 기초로 하여 사각형, 마름모형, 삼각형, 육각형, 원형, 점, 선 등으로 명명하였으며, 문자형은 문자 자체보다는 기하학적인 형태로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의 태극, 팔괘는 원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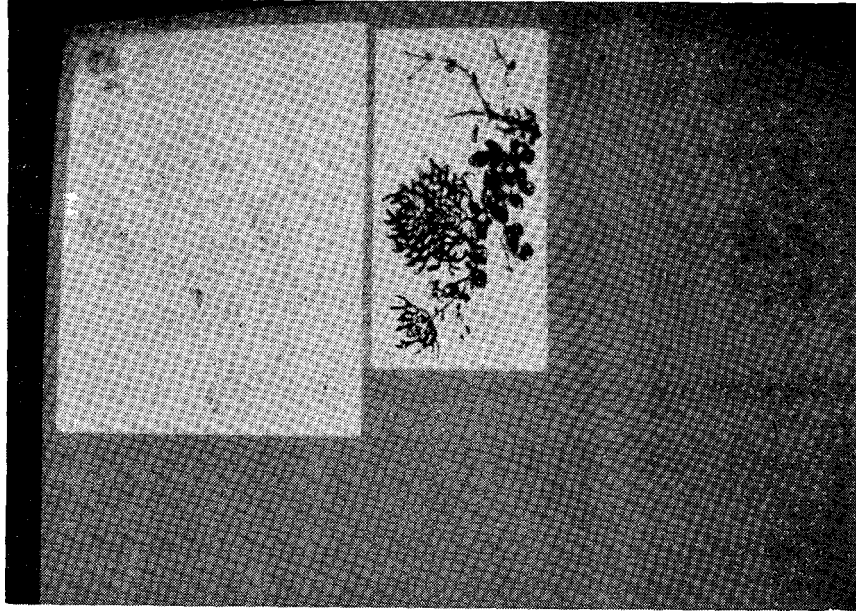
3. 문양의 표현방법에 따른 유형분류

상위범주와 기초범주에 해당하는 문양군과 문양들은 표현대상에 따라 분류하였지만, 하위범주에서는 표현방법에 따라 유형적 분류를 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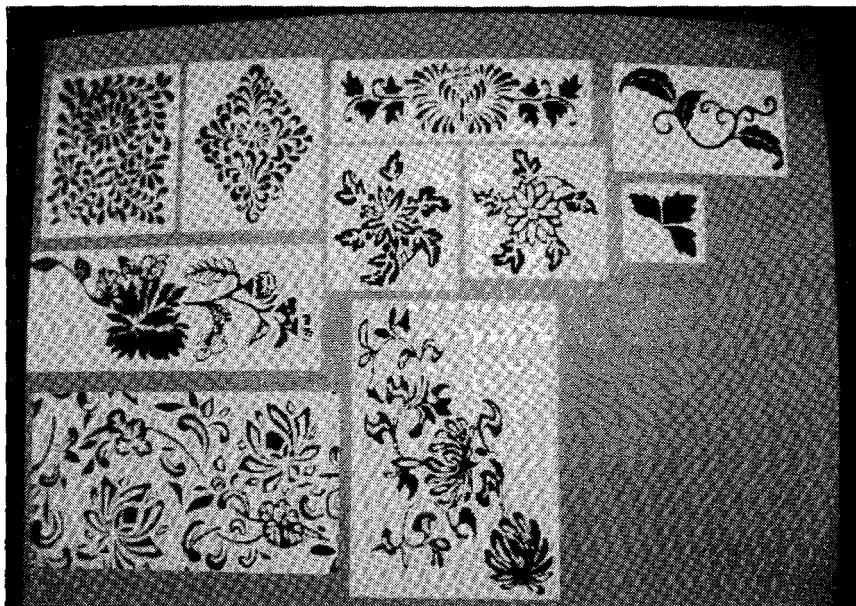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문양유형은 표현방법에 있어 단순화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추상화는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자연의 형상을 단순화함을 내포한다. 추상화는 단순화의 정도에 따라 사실적인 표현, 양식적인 표현, 추상적인 표현, 기하학적인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³⁹⁾ 리드는 이를 세단계로 나누었으며, 러스킨은 4단계로 나누었다. 여기서는 한국전통문양을 단순화 정도에 따라 사실형, 양식형, 추상형, 기하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기하형은 기하문군에 포함시켜, 따로 분류함으로써 사실형, 양식형, 추상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한국전통문양의 표현은 선에 의한 외곽선 표현과 그 내부의 표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었다. 각 유형마다 그 표현 방법을 보면, 사실형은 유기적 형태를 살려 세밀한 외곽선과 내부의 표현을 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한 유형으로서 자연물 또는 인공물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시각화하여 묘사한 것으로 세밀한 선으로 표현되었다. 즉, 대상의 외곽선을 세밀하게 세부까지 묘사하며, 내부의 표현에서는 색채 음영 등에 의해 구분되는 부분을 모두 선으로 표현한 유형이다. 양식형은 사실형과 유사하면서 실제의 대상보다 아름답게 단순화 혹은 과장시켜 새로운 분위기와 흥미를 자아내게 하는 유형으로 외곽선을 단순화시켜 묘사하며, 내부는 평면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것이 이 유형에 속한다. 추상형은 디테일을 무시하고 복잡한 형태를 줄여 복잡한 구조의 본질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외곽선과 내부의 표현이 극히 단순화되어 표현된 유형이다. 그러나 실제 모티브의 인상을 인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단순화된 유형을 의미한다. 반면에 원형을 인식할 수 없는 정도로 단순화되어 기하학적인 선이나 형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하문에 포함시켰다. 위의 분류방법에 따라 식물문군의 국화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았다. <그림 1>은 국화의 사실적인 모습이 그대로 묘사된 사실형 국화로, 국화의 외곽선과 그 내부의 표현이 세밀하게 표현되었다. <그림 2>는 양식형 국화로 외곽선과 내부의 표현이 단순화 평면화되어 표현되었으며, 국화의 줄기와 잎모양도 아름답게 과장되어 표현되었다. <그림 3>은 추상형으로, 국화의 디테일이 완전히 무시된 형태로, 외곽선이 극히 단순화되었으며 내부의 표현이 거의 묘사되지 않거나, 매우 단순한 선과 형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국화의 본연의 모습은 지니고 있다. <그림 4>는 국화를 극히 단순화시켜 표현한 것으로 국화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단지 기하학적인 선과 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표현된 문양들은 기하문에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하위범주의



<그림 1> 한국전통문양의 분류체계 (Classification System of Korean Patter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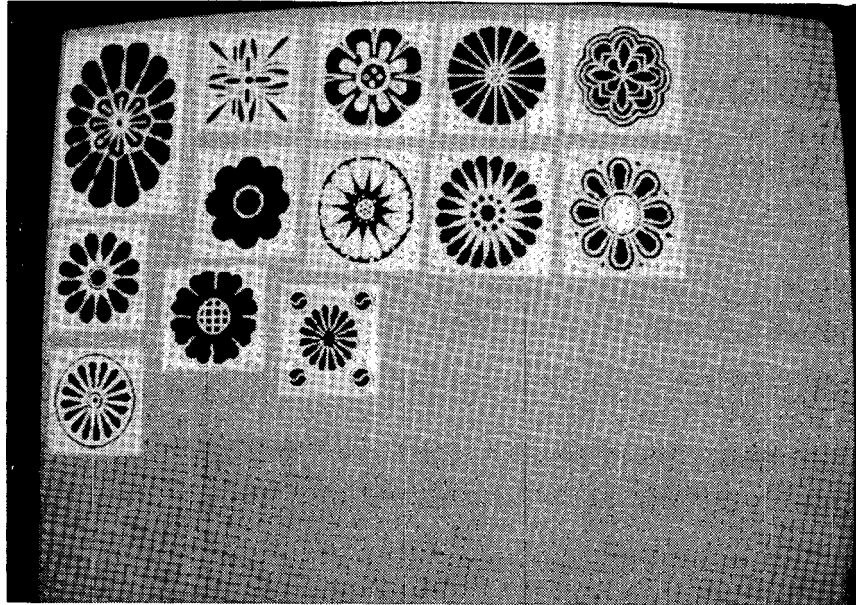


<그림 2> 식물문 / 국화 / 사실형에 속하는 모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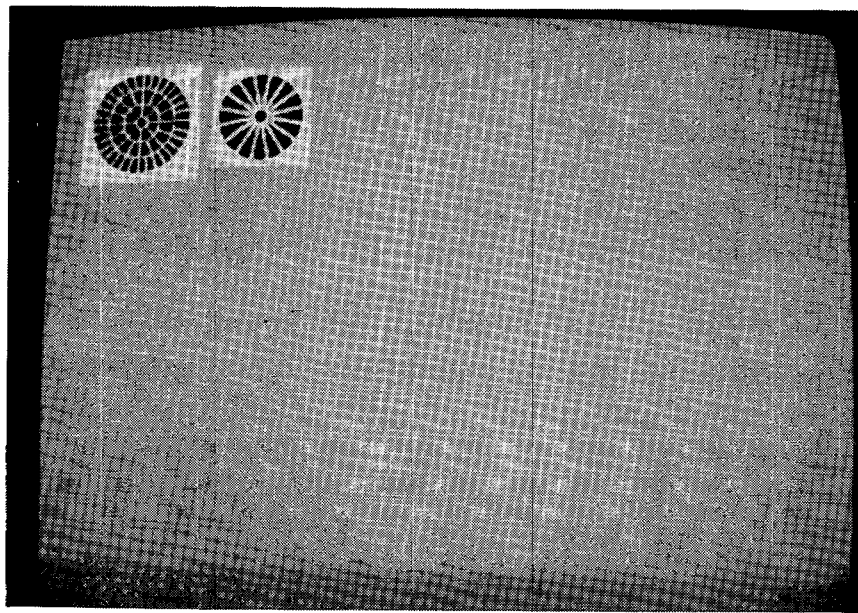


<그림 3> 식물문 / 국화 / 양식형에 속하는 모티브.

문양은 표현방법에 있어 단순화 정도에 따라 사실형, 양식형, 추상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그림 1).



<그림 4> 식물문/국화/추상형에 속하는 모티브.



<그림 5> 기하문에 속하는 국화/기하형의 모티브.

4. 한국전통문양의 분류체계

이와 같이 상위범주, 기초범주, 하위범주로 분류된 한국전통문양은 분류체계로 나타낼 수 있었다. 분류체계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기 때문에,³⁰⁾ 분류체계의

체계적 전략을 계층적으로 나타내어 각 수준의 범주를 수형도로 표현함으로써 분류체계를 시각화 할 수 있었다(그림 1).

분류체계의 범주수준에 따라 표현하면, “식물문/국화/추상형”은 식물문에 해당하는 추상형의 국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는 분류체계는 한국문양을 전산화할 때 사용될 수 있으며, 문양을 입력할 때 범주수준의 순서에 따라 화일명을 표기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의 한국문양 분류방법은 표현대상과 상징적인 의미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표현방법에 따라 분류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같은 문양이 중복되어 분류되거나 한 문양이 여러 문양군에 분리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양의 분류에 있어서 같은 문양이 중복되어 분류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문양의 표현대상과 표현방법을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이들을 같은 차원에서 분류하지 않고, 표현 대상에 의한 분류차원과 표현 방법에 의한 분류 차원을 달리하여 세 수준의 범주로 문양을 분류하였다. 상위범주와 기초범주에서는 표현대상에 따른 분류작업을 행하였으며 하위범주에서는 단순화 정도에 의한 표현방법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문양의 범주화를 행하였다.

상위범주의 문양군들은 문양들의 집합으로, 문양들의 근본적인 속성의 유사성에 근거해 범주화하여 구성하였다. 즉, 상위범주는 문헌과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공유된 자연문군, 동물문군, 식물문군, 기하문군의 네 가지 문양군 외에 인공물문군, 복합문군, 기타문군을 추가하여 일곱 가지의 문양군으로 구성하였다. 기초범주의 문양들은 대상 개개에 따라 명명하여 구성하였다. 문양용어의 경우 대개 한자어 또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명명되어 있는 용어들을 현대용어로 바꾸어 현대인의 감각에 맞도록 표기하였다. 그러나 현대어로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위범주의 문양들은 문양의 외곽선과 그 내부의 표현의 단순화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사실형, 양식형, 추상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표현대상과 동시에 표현방법에 따른 유형으로의 분류를 시도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또한 한국전통문양의 전산화를 위한 기초 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전통문양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해, 텍스타일 분야에서 이미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컴퓨터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한국전통문양의 전산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문양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구조를 갖도록 한다. 이 분류체계를 기초로 하여 한국문양의 전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섬유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며, 특히 텍스타일 분야에서의 한국문양의 디자인 개발 및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이선화, 텍스타일 디자인, 미진사, p. 15, 1991.
2. Pamela J. Schlick, Classification Systems: Alternative Research Strategies for Historic Costume, ITAA special publication No. 4, p. 151, 1991.

3. 오현정, 복식미 범주의 개념구조에 관한 연구-쉬크와 댄디즘을 중심으로, 의류 학회지 17권 2호, p. 170, 5월 1993.
4. 김재숙, 김희숙, 의복범주가 젊은이의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유행성 및 착용자의 체형에 관련지어-, 의류학회지 16권 4호, p. 372, 11월 1992.
5. Pamela J. Schlick, Classification Systems: Alternative Research Strategies for Historic Costume, ITAA special publication No. 4, p. 151, 1991.
6. Sharron J. Lennon, Categorization as a Function of Body Type, CTRJ Vol. 10 #2, p. 19, winter 1992.
7. 다케우찌 도시오, 막학예술학 사전, 미진사, 안영길외 역, p. 283, 1993.
8. 구미지, 러스킨의 장식유형 분류를 사용한 19세기 복식장식의 유형적 해석, 의류학회지, 16권 3호, p. 317, 8월 1992.
9. 정태용, 현대건축에서의 유형개념 및 유형학적 접근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p. 34-35, 1988.
10. Maria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Hall Inc. , p. 170-179, 1980.
11. 서희환, 한국인의 생활문양, p. V.
12. 최혜정,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문양과 상징성에 관한 고찰, 복식 13호, p. 67, 1989.
13. 구미지, 러스킨의 장식유형 분류를 사용한 19세기 복식장식의 유형적 해석, 의류학회지, 16권 3호, p. 318, 8월 1992.
14. 이선화, 텍스타일 디자인, 미진사, p. 36, 1991.
15. 임영주, 한국문양사, 미진사, 1983.
16. 임영주, 전통문양자료집, 미진사, 1991.
17. 황오근, 한국문양사, 열화당, 1991.
18. 김종덕, 직포에 나타난 길상문양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4.
19. 황희옥, 조선조 후기 복식류에 나타난 박쥐문양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1990.
20. 하덕순, 한복에 장식된 문양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3.
21. 원수영, 고려시대 이후 당초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22. 강석주, 조선시대 청화백자의 문양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89.
23. 김기택, 신라와당의 문양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88.
24. 박미성, 전통잡두의 문양분석과 그에 따르는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3.
25. 김은숙, 떡살문양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2.
26. 이은정, 선의 기하학적 형태에 관한 연구-한국전통 창살문양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3.
27. 최옥자, 실물로 본 색채와 무늬의 고찰-이조시대 의상을 중심으로-, 복식 창간호, 1977.
28. 인윤실, 조선왕조 시대 금박에 관한 연구, 복식 제 2호, 1978.
29. 최혜정,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문양과 상징성에 관한 고찰, 복식 13호, 1989.
30. 김종덕, 직포에 나타난 길상문양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4.

31. 서희환, 한국인의 생활문양, p. 273.
32. 안상수, Korean Motifs 4, 안 그래픽스, p. 12.
33. David A. Lauer, Design Basics, Holt, Rinehart and Winston, p. 153.
34. Pamela J. Schlick, Classification Systems: Alternative Research Strategies for Historic Costume, ITAA special publication No. 4, p. 151, 1991.